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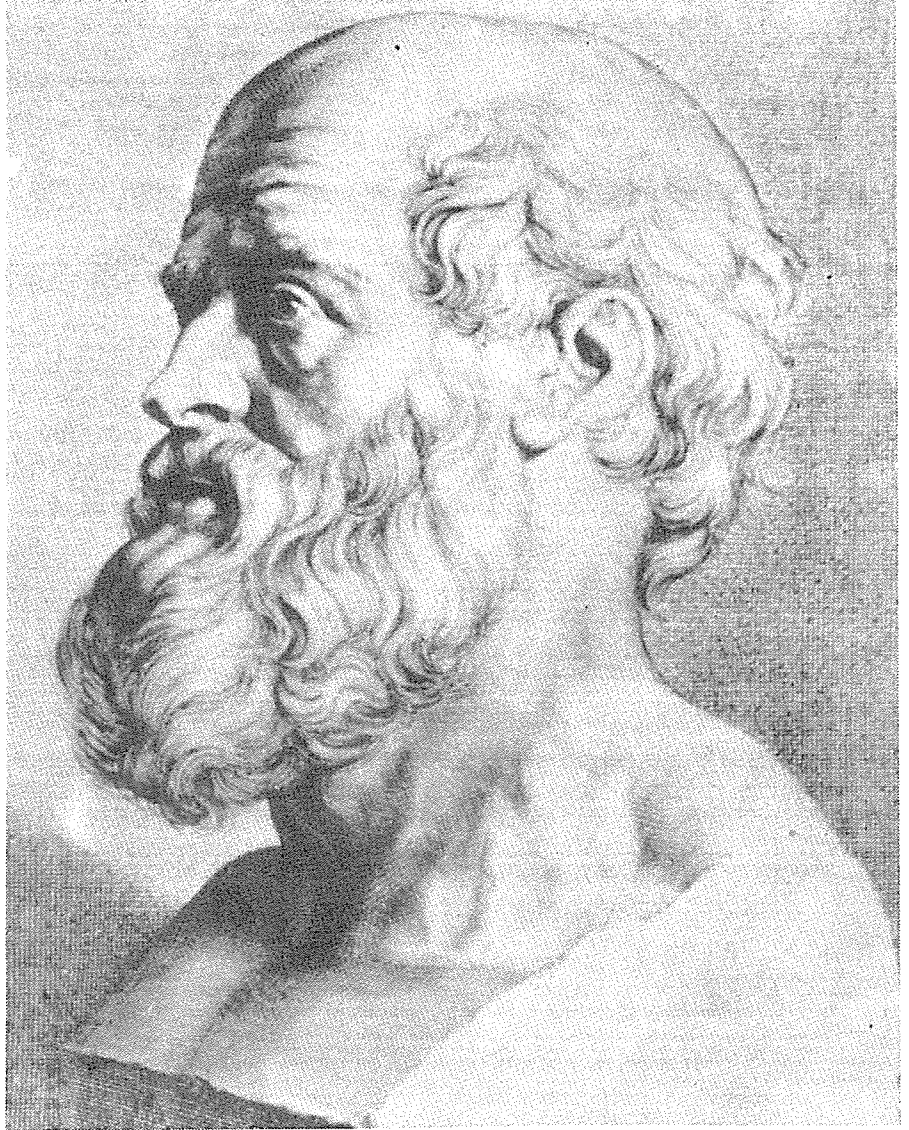
히포크라테스 肖像

「생명 은 짧고, 기술 은 길다. 적절한 때는 한순간이며, 치료는 일정하지 않고, 분리 현상은 때로는 괴로운 것이다.

의사는 필요로 하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, 환자 자신에 대해서, 환자를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, 또한 환자의 바깥쪽일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」고 갈파한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새삼 떠오르는 계절이다.

이 초상은 파울루스, 폰티우스(1603~58년) 작의 판화로써 고대 대리석 흉상을 사생한 루벤스의 그림을 기초로 한 것이다.

미국 의학도서관 소장 (베세스다)



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